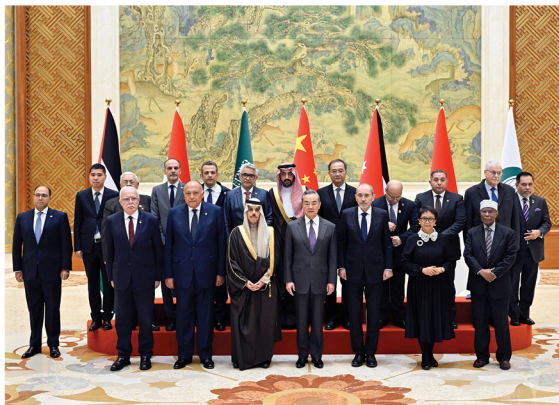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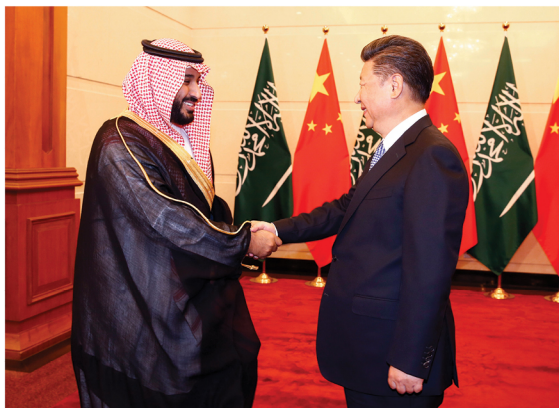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장지향, 신문경, 김지연

2023년 12월



Asan Report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장지향, 신문경, 김지연

2023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자

장 지 향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와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와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화,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최소한의 중동 수업»(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Palgrave Macmillan 2013), 주요 논문으로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아산리포트 2018),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신 문 경

신문경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인하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미중관계, 중국정치외교 등이다.

김 지 연

김지연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베이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정치사상)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미중관계, 정체성, 종교 및 민족 갈등, 정치폭력 등이다.

목차

I. 들어가며	06
II. 중동의 대중국 협력 강화: 배경과 평가	08
1. 세일 혁명 이후 독보적 수출 대상국이자 산업 다각화 정책의 핵심 경제협력국	08
2. 미국의 ‘역할 축소론’ 이후 외교 안보 다변화의 주요 대상국	13
3.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분석	19
III. 중국의 중동 진출 심화: 배경과 평가	27
1. 일대일로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27
2. 미국의 탈중동 시기 안정적 입지 확보: 디지털 및 군사협력 강화	33
3. 중국의 수니파-시아파 갈등 중재와 중동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평가	39
IV. 나가며: 중동과 중국의 협력 강화가 한국의 중동정책에 주는 함의	44
참고문헌	48

그림

[그림 1] 2006~22년 GCC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원유량	09
[그림 2] 2021~22년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20
[그림 3] 2020년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21
[그림 4] 2023년 아랍 세계 청년층이 생각하는 우방국	23
[그림 5]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지도	31

표

[표 1] 중국의 동반자 외교	27
[표 2] 중국과 중동 주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29
[표 3] 1950년대 중국과 중동 국가 수교	41

I. 들어가며

중동에서 중국은 새로운 행위자이지만 최근 적극적인 경제·외교 활동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발표해 중동이 핵심 교두보 지역으로 부상하고 비슷한 시기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해 중동 내 미국 공백이 예상되면서 중동과 중국은 빠르게 협력을 다졌다. 중동의 주요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계를 넘어 외교와 안보 관계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 시기에 들어와 미국이 ‘중동 내 역할 축소’를 가속하자 중국은 중동 지역 내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다졌으며 군사협력까지 시도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의 탈중동 움직임에 중국이 빠르게 틈새를 노림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경쟁이 중동에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 대중국 협력 강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셰일(shale) 에너지 혁명 이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동 산유국에 중요한 에너지 수출국이며, 특히 걸프 산유국이 전례 없는 내용과 속도로 추진하는 최첨단 미래 기술과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혁신 등과 같은 탈석유 산업 다각화 개혁 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다. 둘째, 중동 국가에게 중국은 미국의 중동 이탈 이후를 대비할 외교 안보 협력의 다변화 대상이며 ‘동방 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의 활발한 대중동 진출에 대해 중동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2023년 ‘아스다 버슨-마스텔러(ASDA'A Burson-Marsteller)’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등 아랍 18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방국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80%)은 2위를 기록한 반면, 미국(72%)은 7위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아랍 바로미터(Arab Barometer)’에서 실시한 강대국 호감도 인식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22년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모로코를 제외한 11개국에서 중국 호감도가 미국과 같거나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6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미만이 미국에 호의적이며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있어 중동 진출 심화의 핵심 배경은 중동이 일대일로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지역이란 점이다. 중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항만, 철도, 도로, 화력발전소, 댐 등의 인프라로 연결해 거대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해왔고 중동은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고리다. 이에 더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동 내 권위주의 국가를 상대로 내정 불간섭과 탈정치 입장을 내세웠다. 또 디지털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미국은 여러 중동 국가에 강압적 모습으로 비춰져 협력관계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중국은 중동 국가에 반정부 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통제기술과 최첨단 보안 감시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렇게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 다수와 디지털 실크로드(數字絲綢之路, Digital Silk Road)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국의 표준에 따라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화웨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과 중동 주요국 간에 무기 거래, 합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활발한 군사협력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년 초 중국이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종주국 이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중재자로 나섬에 따라 에너지 안보 확보로 제한하던 기존의 소극적 역할을 넘어 역내 긴장 해소에 참여할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역내 미국의 공백을 메울 적극적 활동을 예고했다.

향후 중동과 중국 간의 협력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동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율해야 한다. 한국은 그간 중동에서 핵확산 금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자유 시장경제 지지를 핵심으로 삼는 중견국 외교를 강조해왔다. 이는 최근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질서, 개방성 등을 강조하며 전개하는 '가치 외교'와도 부합하는 부분으로,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국제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단, 중동의 많은 나라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기조를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만 제한하기보다 최근 여러 걸프 산유국이 추진하는 파격적인 개혁개방과 혁신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이들 산유국과의 경제 협력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발전모델은 중동 국가가 중요시하는 공동체, 도덕과 윤리, 통합과 같은 전통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시장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중동 국가의 젊은 세대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과학 분야와 고급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독보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홍보하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 중동의 대중국 협력 강화: 배경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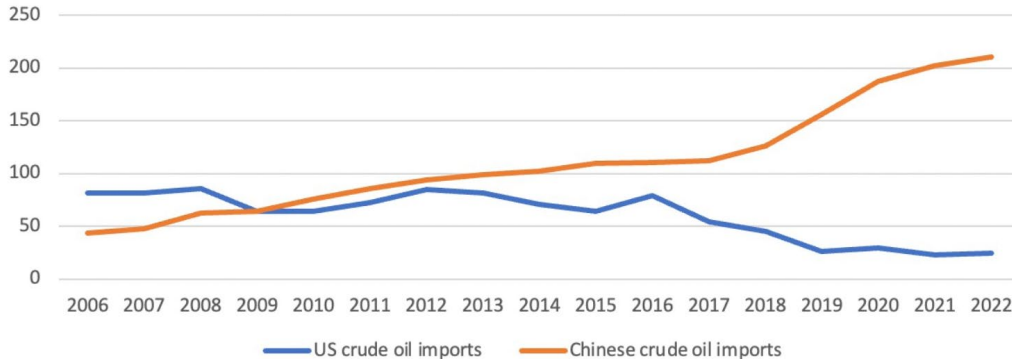
1. 셰일 혁명 이후 독보적 수출 대상국이자 산업 다각화 정책의 핵심 경제협력국

중동 주요 산유국에 중국은 독보적인 에너지 수출 대상국이다. 셰일 에너지 혁명에 성공한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의 원유 가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으나 중국은 여전히 중동 에너지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최첨단 공법을 이용해 셰일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재정의 80%가량을 석유와 가스 자원 수출로 충당해온 중동 산유국은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발 셰일 혁명은 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자원 부국의 저주를 불러냈다. 2018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올랐고 2019년에는 원유 수출국이 됐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회원국은 적자의 긴 터널로 들어갔고 재정수지와 실질 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했다. 중동 산유국 내 OPEC 회원국은 2022년 기준 생산량 순위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이란,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이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 내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OPEC은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이며 OPEC 창립을 주도한 멤버이자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 매파로서 적정 가격과 생산 속도를 통해 회원국 전체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해왔다. OPEC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는 중동을 넘어 글로벌 혁신 국가로 거듭나는 UAE가 OPEC 내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정이 불안하거나 제재에 발이 묶인 다른 산유국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셰일 혁명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 때문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저가 주택 공급, 보조금 지급 등 대규모 복지 정책으로 유지해오던 통치 권위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반면 중국은 1993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원유 순(純)수입국이 되더니, 셰일 혁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순수입국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천연자원 지정학을 뒤흔들 세대 교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이었다. 2019년 걸프 산유국이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44%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16.8%를 차지했다.

[그림 1] 2006~22년 GCC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원유량 (단위: 백만 톤)



출처: “China is getting comfortable with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The West must pragmatically adapt to its growing regional influence,” *Atlantic Council*, April 5, 2023.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국은 최대 석유 수출 대상국이자 핵심 교역국이기도 하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국 석유 수출량은 8,750만 톤에 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주도의 대리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면서 2023년 1월과 2월 러시아의 대중국 석유 수출량이 1,568만 톤을 기록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기간 석유 수출량(1,392만 톤)을 앞지르기도 했다.²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2019년 중국의 국영 기금인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회사인 아크와 파워(ACWA Power)의 지분 49%를 매입하면서 본격화했다. 2023년 3월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가 중국 랴오닝성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심화의 신호로 중국 룡성석유화학 그룹(Rongsheng Petrochemical group)의 지분 10%를 매입하는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다. 거래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룡성의 자회사인 저장석유화학회사(Zhejiang

1. “China becomes world’s top oil importer,” *Financial Times*, March 5, 2013., <https://www.ft.com/content/d33b5104-84a1-11e2-aaf1-00144feabdc0>; John Calabrese, “China Prioritizes Short-Term Energy Security: Implications for Sino-Middle East Relations,”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2.
2. “Russia is China’s top crude supplier for Jan-Feb; volumes up 23.8%,” *Reuters*, March 20, 2023.,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russia-is-chinas-top-crude-supplier-jan-feb-volumes-up-238-yoy-2023-03-20/>.

Petrochemical Corp.)에 석유화학 공급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80만 톤 및 기타 화학 제품 원료 30만 톤을 매년 받게 됐다.³

2020년 7월 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는 중국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가 아부다비의 로우어 자쿰(Lower Zakum), 움 샤이프(Umm Shaif), 나스르(Nasr)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 중 4%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로 이전하였다고 밝혔으며, UAE와 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GCC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중동 최대 무역 교역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와 만나 에너지·정보통신·인프라를 망라하는 500억 달러 규모 협약을 체결했다.⁴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 다각화를 위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자원의 저주’, ‘풍요의 역설’ 증후군에서 벗어나고자 개혁개방과 산업 다각화를 선포하며 변신을 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폭 변화는 2016년 당시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선포한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과 함께 시작했다. 넘쳐나는 오일머니 덕에 세금을 걷지 않던 GCC 회원국들은 2016년 특별소비세, 2017년 부가가치세 도입 계획을 함께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를 선도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일련의 개혁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부터 재정 건전성 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수치를 보였으나 외자 유치를 늘리려는 국가 체질 개선 전략은 이어졌다. 재

3. “Saudi Aramco boosts China investment with two refinery deals,” *Reuters*, March 27, 2023.,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audi-aramco-open-new-china-refinery-petchem-complex-2026-2023-03-26/>.

4. “ADNOC adds new Chinese partner to Lower Zakum, Umm Shaif, Nasr concessions,” *Oil & Gas Journal*, July 30, 2020., <https://www.ogj.com/general-interest/article/14180593/adnoc-adds-new-chinese-partner-to-lower-zakum-umm-shaif-nasr-concessions>; Dominika Urhová, “China’s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Middle East: Lessons from China’s Engagement Elsewhere”,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2.

정 위기보다 정권 안정에 더 큰 위협은 바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년층의 의식 변화였다. 35세 이하 청년 세대가 종교, 가족, 공동체 등의 전통 가치 대신 개인 의사, 실용주의, 세계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⁵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맞춰 석유 의존 경제와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각화와 개방 사회를 목표로 과감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협력해왔다. 2019년 기준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철도건설유한공사(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Limited, CRCC)가 건설한 메카 경전철이 포함된다.⁶ 또 중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Jeddah)-메카(Mecca)-메디나(Medina)를 잇는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개혁 프로그램 ‘비전 2030’의 거점인 홍해 지역 및 최첨단 친환경 미래 도시 ‘네옴’과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운송 네트워크 구축안을 추진하고 있다.⁷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파격적인 경제·사회 개혁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체질 개선 프로젝트에 나선 UAE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의 중동 내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랐으며, 그 비중은 40%에 달했다.⁸ UAE는 GCC 회원국 가운데서도 군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독보적인 속도로 추진한 나라다. 2022년 대통령이 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통치자는 UAE의 실질적 지도자로서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 다각화를 목표로 한 국가 체질 개선에 힘써왔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UAE 누적 투자액은 392억 달러에 달하며, 주

-
5. 장지향·유아름, “UAE·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과 청년 의식 변화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06.08.
 6. “Chinese-built Mecca Light Railway praised by Hajj pilgrims,” *CGTN*, August 30, 2018., https://news.cgtn.com/news/3d3d514f7a55444f79457a6333566d54/share_p.html.
 7. “共建‘一帶一路’走深走實 推動構建中阿命運共同體”,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22.12.08., https://www.gov.cn/xinwen/2022-12/08/content_5730665.htm.
 8. “中國同阿聯酋的關係”,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04.,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234/sbgx_676238/; Guanie Lim and Mustafa Yağcı, “China in the Middle East: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Trans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ocial Change in the Gulf Regio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3.

요 투자 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53.9%) △부동산(23.1%) △교통(10.7%) 등이 있다.⁹

세일 혁명으로 고객관리에 차질이 생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오랜 제재로 경제 복구가 절실한 이란 역시 대중국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서구의 제재가 심화하는 와중에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갑작스럽게 발발한 과정에서 급진적인 혁명 주도 세력이 주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 70여 명을 1년 넘게 인질로 삼자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시행했고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정책을 시행해왔다. 이후 이란 강경 보수파가 핵개발을 시도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는 심화됐다. 2015년 오바마 정부와 개혁파 이란 정부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고강도 제재 정책을 펼치자 이란은 더욱 고립됐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했다. 2021년 중국은 이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해 향후 25년간 이란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통신, 의료, 은행, 항만, 철도, 정보기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대가로 이란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보장받게 되었다.¹⁰ 2022년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량은 1일 70만 배럴을 기록했고, 이는 2018년 트럼프 정부 시기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이전보다 7만 배럴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¹¹

또 다른 산유국 이라크에게도 중국은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국이며 이라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각종 건설 계약의 주요 수혜국이다. 2019년 이라크와 중국은 ‘경제 부흥을 위한 석유’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 향후 20년 동안 이라크는 석유를,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이라크의 에너지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남부와 동부 지역의 열악한 안보, 거버넌스, 투자 환경을 이용했다.¹²

9. Tracker, China Global Investment,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022.

10. “China, With \$400 Billion Iran Deal, Could Deepen Influence in Mideast,” *The New York Times*, March 27,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27/world/middleeast/china-iran-deal.html>.

11. “China buys more Iranian oil now than it did before sanctions, data shows,” *Reuters*, March 2, 20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buys-more-iranian-oil-now-than-it-did-before-sanctions-data-shows-2022-03-01/>.

12. “中國同伊拉克的關係”,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3.04.,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7148/sbgx_677152/.

2. 미국의 ‘역할 축소론’ 이후 외교 안보 다변화의 주요 대상국

미국이 중동 내 역할 축소를 선언한 후 중동 주요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의 안보 공백을 대비할 외교 안보 협력 다변화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역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막대한 자원과 경제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무기 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기존에 중동과 무기 거래를 통해 이뤄졌던 협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 수준에 그치는 반면, 중동 내 미국의 보완재로서 중국의 입지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출범한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집중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카이로대학 연설(2009.6.4)과 중동 관련 대국민 연설(2011.5.19)에서 미국과 중동 이슬람 세계 간의 관계 재정립을 선언하며 “기존의 군사적 개입에서 벗어나 중동 민주화의 토대가 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¹³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더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21세기에 미국은 아태 지역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⁴ 이러한 선언은 미국의 중동 내 역할 축소 입장으로 이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기조와 ‘뒤에서 이끄는(leading from behind)’ 방식에 입각한 중동정책을 내세웠다.¹⁵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참전으로 인한 국내 여론의 악화와 장기전의 피로감, 셰일 에너지

13.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부대를 유지할 의도가 없으며, 영구적인 군기지를 만들 생각도 없다”, “미국은 7월까지 이라크 도시에서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2012년까지 이라크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이라크 민주정부와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marks by the President at Cairo University,” The White House, June 4, 2009.,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Cairo-university-6-04-09>.; 2011년 대국민 연설에서는 “중동 지역 전반에 걸쳐 개혁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 “미국은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hite House, May 19,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05/19/remarks-president-middle-east-and-north-africa>.

14.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11/17/remarks-president-obama-australian-parliament>.

지 개발에 따른 중동 자원의 의존도 감소에 따라 중국 견제의 이해관계가 우선순위로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역외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이란의 강경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 이란 내 온건 개혁파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또한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세습 독재정권이 화학무기로 자국 민간인을 계속 공격해도 군사적 대응과 개입을 삼갔다.

이후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기조 아래 지불 능력 중시 동맹관, 근시안적 거래 외교를 강조하며 ‘중동에서 발 빼기’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란 핵합의의 독단적 파기, 편파적 친이스라엘 행보, 대NATO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우방 쿠르드 배신과 급작스러운 시리아 철군을 강행해 중동 내 유례없는 혼란을 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으나 2019년에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및 송유 시설을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으로 공격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중단되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격으로 유가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막대한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¹⁵ 당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1991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의 유전 시설을 공격한 이후 세계 원유 시장을 마비시킨 가장 큰 도발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포퓰리즘 대외정책을 가속화하자 역내 미 동맹 우방국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눈치 보기와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미국은 동맹 우방국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친러, 친이란 밀착 행보를 방관했고 역내 동맹 체제는 느슨해졌다. 그 틈새를 공략한 러시아는 후원국 시리아의 정상 국가 복귀를 위해 종전 협상을 주도했고 외교력을 과시하며 역내 입지를 다졌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 우방국인

15. Jeffrey Goldberg, “The Obama Doctrine: The U.S. president talks through his hardest decisions about America’s role in the world,” *The Atlantic*, April 15, 2016., <https://www.theatlantic.com/press-releases/archive/2016/03/the-obama-doctrine-the-atlantics-exclusive-report-on-presidents-hardest-foreign-policy-decisions/473151/>.

16. “Trump Says Iran Appears Responsible for Saudi Attack but That He Wants to Avoid Wa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6,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16/world/middleeast/saudi-oil.html>.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역시 미국의 중동 이탈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이에 더해 튀르키예,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심화했다.

2021년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뒤집기’가 많은 정책 분야에서 진행됐지만 ‘중동 떠나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중동 내 미국의 역할을 축소 하되 단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오바마 정부 시기와 비슷하게 중국 견제를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민주주의와 인권, 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귀환을 외치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미국의 20년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뼈아픈 실패로 마감했다. 이어 2022년 1월 후티 반군이 UAE에 여러 차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도 바이든 행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응은 향후 사건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는 것으로 제한됐다. 뿐만 아니라 중동 내 주둔하는 미군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최고치에 근접했던 2008년의 294,355명에서 2023년 10월 기준 45,400명까지 감소했다.¹⁷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를 빨리 복원하고 역내 군 감축을 포함한 ‘중동 떠나기’를 가속해 중국 견제와 기후변화 정책에 집중하고자 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동안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본토를 향해 1,300회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벌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2022년 이란 핵합의 복원을 노렸는지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어 중동 내 군사 자원 재배치를 내세워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규모 축소, 전투비행 중대 및 병력 감축 등의 계획도 밝혔다. 2023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마이클 쿠릴라(Michael Kurilla) 사령관은 미국의 중동 내 ‘전력 태세’가 2008년 최고조에 달한 이후 85%가량 감소했고 2022년에만 15% 줄었다고 했다. 펜타곤은 중동 내 F-15와 F-16 제트 전투기 중 일부를 아시아로 이전하거나 구형 모델인 A-10 공격기로 교체했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6개월 전부터 걸프

17. Amy Belasco, “Troop Levels in the Afghan and Iraq Wars, FY2001-FY2012: Cost and Other Potenti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2, 2009; Jacob Knutson, “Where U.S. troops are stationed in the Middle East,” *AXIOS*, October 31, 2023., <https://www.axios.com/2023/10/31/american-troops-middle-east-israel-palestine>.

지역에는 항공모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쿠릴라 사령관은 미국의 중동 안보에 맞선 중국의 전략적 도전이 커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진원지는 남중국해 못지않게 페르시아만이라고 했다.¹⁸

걸프 산유국은 미국의 탈중동 정책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과의 우방 관계에만 기대지 않는 외교 안보 다변화 정책을 새롭게 추구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팽창주의 행보에 맞서고자 2020년에 수니파 아랍 국가인 UAE와 바레인이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전략적 연대를 조직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미국은 탈중동에 앞서 이란의 강경 보수파를 견제하고 역내 세력 균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걸프 산유국에게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협력은 미국의 ‘중동 떠나기’와 이란의 패권 추구에 대비한 안보 보험이자 자구책 중 하나이다.¹⁹

이들 국가의 외교 안보 다변화 정책은 아시아 지향 정책인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5년 오바마 정부의 주도로 타결된 이란 핵 합의에 항의하며 중국을 핵기술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고 했다. 혁신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불붙는 시기에는 중국을 디지털 기술 협력 파트너로 여긴다고도 했다. 사실 1985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 다변화를 꾀한 적이 있다. 당시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였던 반다르 빈 술탄(Bandar bin Sultan) 왕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동풍(東風)-3(CSS-2) 구매 협상을 위해 익명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레이건 행정부는 격노했다.²⁰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비(非)OPEC 산유국인 러시아와 함께 OPEC+(오펙 플러스) 구성을 결정했다. 셰일 혁명에 성공한 후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18. David Ottaway, “Partners of Choice: Biden’s Plan to Check China in Saudi Arabia and the Gulf,” *Wilson Center Viewpoints Series*, May 1, 2023.,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partners-choice-bidens-plan-check-china-saudi-arabia-and-gulf>.

19. Patrick Theros, “Changing Alignments in the Lower Gulf,” *Gulf International Forum*, July 25, 2023, <https://gulfif.org/changing-alignments-in-the-lower-gulf/>.

20. Amar Jallo, “China and the Arab World: From the Silent Partner to Center Stage,” *Wilson Center Viewpoints Series*, August 17, 2023.,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china-and-arab-world-silent-partner-center-stage>.

미국을 겨냥한 결정이었다. 물론 OPEC+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종종 충돌했으나 OPEC+의 출범은 단연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했고 많은 나라가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제재 참여와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4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과의 석유 거래 대금으로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2022년 하반기 OPEC은 하루 360만 배럴을 감산했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미국의 ‘중동 떠나기’ 정책이 선언된 이후 역내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취하는 지켜보기 태도였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UAE의 중국 화웨이 5G 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F-35 전투기 판매를 계속 꺼리자 2021년 UAE는 미국과의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UAE 내 화웨이 시설이 간첩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까다로운 보안 조건을 요구해왔다. 결국 UAE는 미국 대신 중국산과 프랑스산 군용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UAE는 중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C-31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 군용기를 구입한 최초의 걸프 아랍 국가가 되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이 만나 중국이 걸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²¹ 2022년 중동 6개국 외교부 장관과 GCC 사무총장이 중국 우시(無錫)를 방문하여 왕이(王毅) 당시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후 웨이펑허(魏鳳和) 당시 국방부장과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 문제를 논의했고, 웨이펑허 당시 국방부장은 양국이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²² 이처럼 GCC의 중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의 최근 행보는 탈미국, 친중국이자 비동맹으로 읽히기도 한다.

21. “Olympics: Qatar and UAE leaders meet for first time since Gulf thaw,” *Middle East Monitor*, February 6, 2022.,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20206-olympics-qatar-and-uae-leaders-meet-for-first-time-since-gulf-thaw/>.

튀르키예 역시 오스만제국의 영광이라는 과거를 불러내 자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서쪽의 유럽이 아닌 동쪽의 유라시아를 상정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총리의 권위주의 체제가 모습을 드러낸 2010년대 중반 이후 튀르키예의 외교 정책은 튀르키예 민족주의, 신오스만주의, 유라시아주의 기조에 바탕해 팽창주의 행보를 보였다. 2014년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에르도안 후보자는 자신의 지지자를 “오스만제국의 후예들”이라고 칭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하에서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400 시스템을 배치했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에 병력과 자문단 파견 등 군사 개입을 시작했으며 중앙 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교육 기관을 공격적으로 세웠다. 2019년에는 리비아 이슬람주의 정부와 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동지중해 협정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전환하기도 했다.²³

이란은 2023년 2월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뒤이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Sayyid 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시진핑 주석은 SCO는 물론 유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도 SCO의 회원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²⁴

2023년 8월 제15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의 가입 승인이 발표됐다. 회원국 확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던 브릭스 정상들이 기구의 확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최대 산유국 자리를 다

22. “China, Saudi Arabia set for closer military ties as sun sets for US in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7, 2022.,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64943/china-saudi-arabia-set-closer-military-ties-sun-sets-us-middle>.

23. Hakan Yavuz, *Nostalgia for the Empire: The Politics of Neo-Ottom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Oktay Özlühan, “AKP’nin şark i s i nda ‘Uzun adam’ gitti ‘Osmanlı’ torunu’ geldi,” *Taraf Gazetesi*, February 8, 2015.

24. “習近平同伊朗總統萊希舉行會談”,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23.02.14., https://www.gov.cn/xinwen/2023-02/14/content_5741511.htm.

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으로 브릭스는 미국과 G7 주도의 경제 질서에 대응할 동력을 얻었다. 이어 알제리, 바레인, 수단, 시리아, 튀르키예도 브릭스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주요국의 최근 두드러진 외교 다변화 행보에는 급속히 발전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아랍 세계²⁵의 미중 호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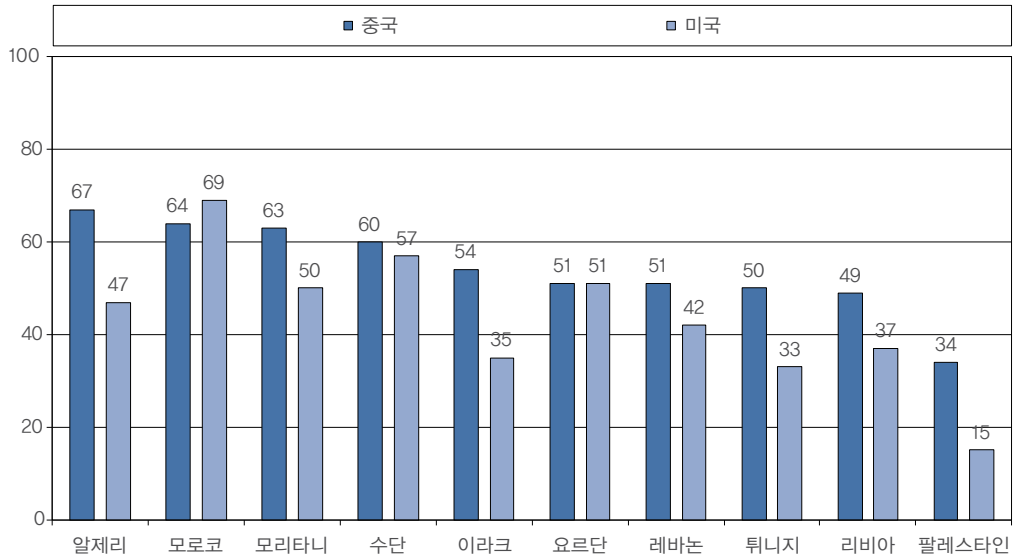
중동 내 중국의 부상은 아랍 시민의 국가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 호감도는 한 나라의 긍정적 평판과 친밀한 이미지 및 신뢰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향후 관계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볼 수 있다.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분석에 따르면 중동 내 미중 경쟁이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를 넘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가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22년 ‘아랍 바로미터’는 아랍 시민을 대상으로 미중 호감도(% ,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비율)를 조사했다.²⁶ 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 12개국 2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대체로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중국 호감도 각각 69%, 64%로 비슷했던 모로코와 51%로 같았던 요르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의 미국 호감도는 중국 호감도보다 낮았다.

미중 호감도 격차는 알제리에서 가장 컸는데, 호감도는 각각 중국 67%, 미국 47%로 중국 호감도가 미국보다 20%p 더 높았다. 모로코와 알제리의 미중 호감도 격차는 2020년 12월, 트럼프 정부가 모로코의 서사하라 지역 자치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1975년 스페인 점령에서 벗어난 서사하라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제한적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영토의 80%를 장악한 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알제리는 독립운동 세력인 폴리사리오를 지원했다.

25. 중동에는 20개국이 있고 아랍 민족이 다수를 이루는 아랍 국가는 17개국으로서 튀니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이라크, 알제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리비아, 예멘이 해당한다. 나머지 3개국은 튀르키예, 이란, 이스라엘로서 튀르크 민족은 튀르키예, 페르시아 민족은 이란,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의 다수 민족이다. 장지향, 『최소한의 중동 수업』, 서울: 시공사, 2023.

[그림 2] 2021~22년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단위 %)



출처: Michael Robbins, "Public Views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MENA," *Arab Barometer*, Jul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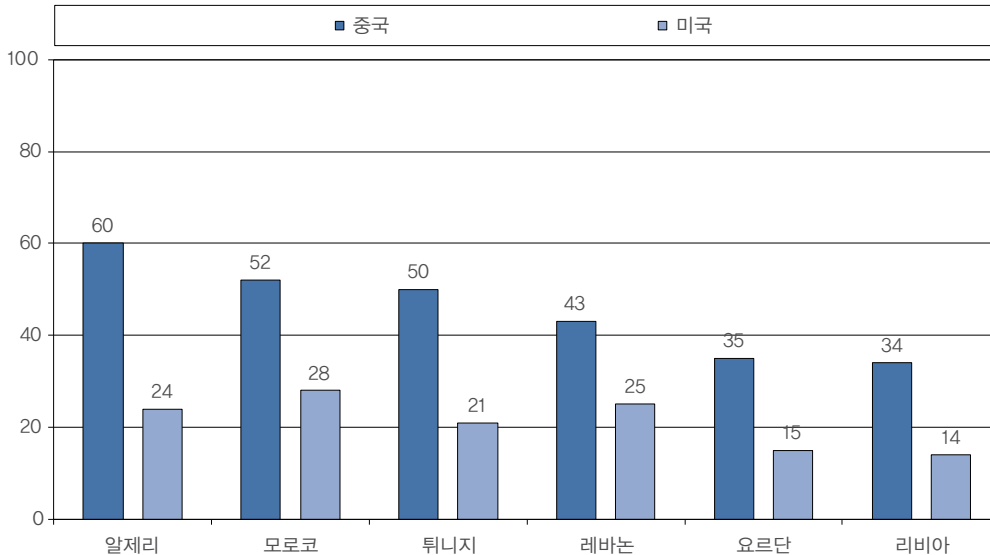
미중 리더에 대한 호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수단 52%, 모로코 46%, 알제리·이라크 35%, 레바논 31%, 요르단 28%, 튀니지 23%였다. 반면,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알제리 53%, 이라크 48%, 수단 43%, 모로코 39%, 레바논·튀니지 35%, 요르단 26%로 나타났다.

‘아랍의 봄’ 혁명 후 미국이 민주화 과정을 지원한 튀니지와 리비아에서도 중국 호감도는 더 높았다(튀니지: 중국 50% 미국 33%, 리비아: 중국 49% 미국 37%). 미국의 해외 원조 의도에 관해 튀니지인 16%는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본 반면, 43%는 미국이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얻기 위해 해외 원조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리비아인 35%와 튀니지인 40%는 중국의 대외 원조 목적을 경제 발전이나 내부 안정을 돕는 것으로 봤다.²⁷

26. Michael Robbins, "Public Views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MENA," *Arab Barometer*, July 2022.

27. "As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Middle East heats up, polling data shows a complex picture of popular attitudes," *Middle East Institute*, February 23, 2023., <https://www.mei.edu/publications/great-power-competition-middle-east-heats-polling-data-shows-complex-picture-popular>.

[그림 3] 2020년 아랍 세계의 미중 호감도 (단위: %)



출처: "U.S. & China's competition extends to MENA," *Arab Barometer*, January 12, 2021.

2020년에도 ‘아랍 바로미터’는 아랍 시민을 대상으로 미중 호감도를 조사²⁸했는데, 결과는 2021~22년 조사와 비슷했다.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리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6개국의 5,7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미만이 미국에 호의적이었고, 3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호의적이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호감도는 모로코 28%, 레바논 25%, 알제리 24%, 튀니지 21%, 요르단 15%, 리비아 14%였고, 중국 호감도는 알제리 60%, 모로코 52%, 튀니지 50%, 레바논 43%, 요르단 35%, 리비아 34%였다. 중국 당국은 아랍 6개국의 중국 호감도가 미국 호감도보다 두 배 가량 높으며, ‘아랍 바로미터’ 조사 결과에 호의적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편, 레바논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지만 미국의 중동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적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자 호감도는 튀니지 12% 대 52%, 알제리 7% 대 43%, 모로코

28. "U.S. & China's competition extends to MENA," *Arab Barometer*, January 12, 2021.

9% 대 39%, 리비아 10% 대 38%, 요르단 5% 대 29%, 레바논 17% 대 16%로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의 42%는 향후 미국의 중동정책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2023년 중동 지역 컨설팅 업체 ‘아스다 버슨-마스텔러’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 등 아랍 18개국²⁹(53개 시)에 거주하는 18~24세 3,600명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문항(복수응답)에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튀르키예를 택한 답이 8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영국은 각각 80%, 79%로 튀르키예를 꼽은 비율과 비슷했지만, 미국은 72%로 10%p나 낮았다. 이 조사에서 어느 나라가 적(敵)인지 묻은 문항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86%)이 가장 많았고, 이란(57%)의 순이었다(러시아 32%).³⁰

미중 인식 조사에서 드러난 아랍 시민의 낮은 미국 호감도는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이 지속해온 일관성과 원칙 없는 중동정책 탓이다. 또 다른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실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호의적이었다. 2021~22년 ‘아랍 바로미터’ 조사에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튀니지 10% 대 23%, 모로코 14% 대 46%, 수단 20% 대 52%, 팔레스타인 6% 대 11%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전반적으로 대미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미국의 중동정책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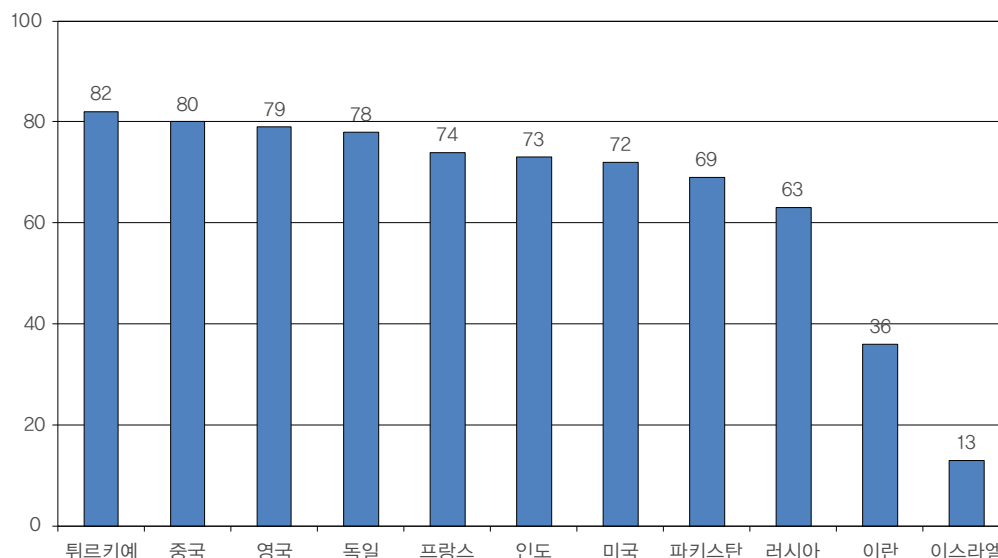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중동에서 군사 정치적 개입의 역사가 없다. 중국 정부도 이 사실을 적극 활용해 자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비롯한 제3세계 문제와 관련해 늘 약자 편에 섰다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아랍어와 영어 공식 뉴스 채널을 만들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아랍 연대’와 ‘아랍 민족 자결주의’를 옹호한다. 또 시리아의 아랍 연맹 복귀 지지와 환영, 중국-아랍 정상회담과 중국-아랍 간 술한 공동 프로젝트를 계속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6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29.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아랍 17개국인 튀니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이라크, 알제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리비아, 예멘 가운데 카타르를 빼고 수단과 남수단을 포함시켜 총 1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30. “China surpasses US in popularity among Arab youth as Beijing expands Middle East footprint,” CNN, June 21, 2023., <https://edition.cnn.com/2023/06/21/middleeast/china-surpasses-us-mideast-survey-mime-intl/index.html>.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국민 초청해 역사적 중국-팔레스타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표하고, 경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압바스 수반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억압 정책을 지지했다.³¹

[그림 4] 2023년 아랍 세계 청년층이 생각하는 우방국 (단위: %)



출처: 연합뉴스 그래픽("아랍권 청년층이 생각하는 우방국은?", 아스다 버슨-마스텔러 조사, 2023.06.22)을 토대로 재구성.

더불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덕분에 패권주의와 관련된 부정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일대일로 전략의 경제적 접근에 집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역시, 외교 안보가 아닌 경제 수치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寧)은 2022년 12월 아랍-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중국의 아랍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30억 달러로 10년 동안 2.6배 증가했고, 무역 규모는 3,300억 달러를 넘었다"고 강조했다.³²

31. Merissa Khurma, "China has a Growing Presence in Arab Hearts and Minds,"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3.

32. "2022년12월9일外交部發言人毛寧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2.12.09.,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_673025/202212/t20221209_10988033.shtml

이에 대해 중국은 중동 및 아랍 정부에 인권과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 없이 감시 시스템과 무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 지역 내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압력보다는 중국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따라서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지역 소수 무슬림 탄압에도 내정이라며 침묵한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은 2019년 유엔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지역에 국제 옵서버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자, 이에 반대했다.³³ 또 COVID-19 시기 중국이 실시한 의료용품과 백신 물량 공세 역시 중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이처럼 아랍 세계의 시민 사이에는 중동에서 입지를 넓혀 온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낮은 미국 호감도, 높은 중국 호감도에는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 2021~22년 ‘아랍 바로미터’ 조사의 ‘경제 협력’ 관련 질문에서 튀니지 응답자 60%는 미국과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이는 중국과 더 밀접한 경제 관계를 원한다는 65%와 비슷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국가에서도 경제 협력은 더 강화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는 비슷한 수가 미국 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선호 의견으로 갈렸지만, 모로코에서는 중국보다 미국을 경제 파트너로 선호했다.

레바논에서는 최고 중등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23%, 농촌 응답자의 3분의 1이 중국과의 경제 유대가 완화된 것을 선호했다. 이라크에서는 중등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23%, 농촌 응답자의 21%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축소를 지지했다. 조사에 응한 모든 국가에서 큰 격차로 중국을 가장 낮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국가로 간주했다. 이라크에서는 69%가 중국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본 반면, 미국 제품에 대해선 8%만 그렇게 생각했다. 요르단에서는 64%가 중국을 낮은 품질의 제품 생산국으로 본 반면, 미국 제품을 같은 관점으로 본 응답자는 7%였다. 조사 대상인 다른 7개국에서는 다수가 모두 중국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 고용주로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사 대상 국가의 응답자 대다수는 미국(레바논, 모리타니, 수단) 또는 독일(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33. “Why do Muslim states stay silent over China’s abuse of the Uighurs?” *The Guardian*, July 4,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jul/04/why-do-muslim-states-stay-silent-over-chinas-uighur-brutality>.

튀니지) 기업을 계약 파트너로 선호했다. 이라크에서만 다수(27%)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중국 기업을 선호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수단)과 독일(알제리, 모리타니, 튀니지) 기업이 뇌물을 줄 가능성이 가장 낮고, 중국 기업은 뒤처져 있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및 독일(알제리, 레바논, 튀니지) 기업은 현지 직원에게 최고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겼고, 중국 기업은 그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의 여론조사는 아랍 세계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튀니지를 제외한 아랍 국가는 모두 비민주주의 체제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클 수 있다. 2011년 발발한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이 10주년을 맞았지만 혁명 근원지인 튀니지를 제외하고, 반독재 혁명이 일어난 나라 모두 민주화에 실패했다. 이집트는 군부 권위주의로 돌아갔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은 장기 내전을 겪고 있다. 더구나 팬데믹 시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약화되면서 중동 및 아랍 세계에서는 권위주의가 심화했다. 이들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 감시가 허용된 틈을 타 방역 명목 아래 집회를 금지했고, 정적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중동과 아랍 시민은 중국이 주변 개도국의 비민주주의 정권에 인터넷 통제기술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제공하며 중동 내 디지털 권위주의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이 감시 카메라, 안면과 홍채 인식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불법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 무슬림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다는 사실은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구르 무슬림을 탄압하며 일당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중국에 중동 정부들이 마냥 밀착할 수 없다.

그런데도 걸프 산유 왕정의 지도자는 독재정권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민주화 혁명을 보며 정권 생존에 위협을 느꼈고, 이후 여론을 의식해 화답의 몸짓을 선보이고자 했다. 중동과 아랍 세계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온 여러 기관은 ‘아랍의 봄’ 혁명 후 정부 측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민감한 주제의 여론조사에 불만을 표하거나 개입하려는 시도가 줄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35세 이하 청년 인구가 구세대와 달리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 실용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점차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층은 부모 세대와 달리 생활 전반에서 SNS를 활용하며 ‘아랍의 봄’ 혁명을 통해 시민의 요구가 분출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제 아랍 세계의 정부는 시민의 대외 인식 변화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³⁴

또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을 위해 전폭적으로 조달해온 해외 개발 자금이 최근 하향세를 보이자, 중국의 경제 협력 추진력에 대한 중동 정부의 기대감도 차츰 사그라지는 추세다. 최근 저개발국에 투자금을 살포할 여력이 예전만 못하고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저개발국을 새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공격적 자금 조달을 중단한 상태다.³⁵ 실제 중국의 경제 전망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로 어두워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2년 성장률 목표치인 5.5%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둔화세가 뚜렷했다. 무엇보다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과 COVID-19 봉쇄가 주 원인이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폭락, 당국의 반시장적 규제와 단속도 문제다. 이 때문인지 중국 고위급의 연설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언급은 줄었다. 2022년 중국 일대일로 사업 관련 해외 투자금은 지난해보다 11.8% 감소했다. 막대한 개발 자금을 쏟아 부었던 스리랑카와 일대일로 최대 협력국으로 여겨지는 파키스탄이 대중 부채에 시달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비판 받았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자국 항구의 지분 70%를 중국 상선항에 99년간 임대했다.³⁶ 그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인력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기에 현지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하거나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또 중국 프로젝트는 종종 품질보다 수량을 우선시하고, 인프라 건설 후 유지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4. 장지향·유아름, "UAE·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과 청년 의식 변화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06.08.

35. 중국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외 투자액(非 일대일로 국가 포함)은 2016~2020년 7,400억 달러에서 2021~2025년 5,500억 달러로 25% 감소함.(Christoph Nedopil Wang,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nvestment Report 2021,"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January 2022.)

36. "Sri Lanka, Struggling With Debt, Hands a Major Port to China,"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2, 2017., <https://www.nytimes.com/2017/12/12/world/asia/sri-lanka-china-port.html>.

Ⅲ. 중국의 중동 진출 심화: 배경과 평가

1. 일대일로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2013년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Silk Road Economic Belt)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통합한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했다. 항만, 철도, 도로, 화력발전소, 댐 등의 인프라 건설과 이를 통한 거대 경제권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교두보인 중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과 경제권 구축에 필수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은 대중동 밀착 행보를 다져왔다. 이에 중국은 중동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며, 주요국과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동 내 새로운 행위자로 떠올랐다.

[표 1] 중국의 동반자 외교

협력 관계	주요 내용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전면적인 협력, 개발 도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경제, 과학기술, 정치, 문화 등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	군사 분야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 관련 긴밀한 협력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고위급 교류 유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강화
협력 동반자 관계 (Cooperative Partnership)	상호이익, 상호존중에 기반한 양자 협력 강화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Friendly Cooperative Partnership)	양자 협력 강화

출처: "Quick guide to China's diplomatic level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0, 2016.

[표 1]에 나타나듯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군사 분야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경제, 과학기술,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단계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난 10년간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등 5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튀르키예에 이어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모로코 등 6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중동 내 국가 간, 종파 간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탈정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다수 국가와 교역을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중동 교역액은 2,884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749억 달러 증가했다.³⁷

2021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예멘 등 중동 10개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³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국은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핵심 교역국이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일대일로 MOU를 체결했다. 이후 2022년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방문하면서 ‘중국-사우디아라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을 연계하는 방안에서 명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에너지, 의료 산업, 건설, 관광,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개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³⁹ 화웨이와의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⁴⁰

2021년 중국은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경쟁자인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포

3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on the Middle East and the Arab World. Accessed June 3, 2023. <https://sgp.fas.org/crs/mideast/>.

38. “Chinamed Data – Middle East,” ChinaMed Data – Middle East, Accessed June 3, 2023. <https://www.chinamed.it/chinamed-data/middle-east>.

39. “中國同沙特阿拉伯的關係”，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3.04.,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860/sbgx_676864/; “Saudi and Chinese companies Sign 34 Investment Agreements,” Saudi Press Agency, December 8, 2022., <https://sp.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407555>.

40. “Saudi Arabia signs Huawei deal, deepening China ties on Xi visit,” Reuters, December 9, 2022., <https://www.reuters.com/world/saudi-lays-lavish-welcome-chinas-xi-heralds-new-era-relations-2022-12-08/>.

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해 향후 25년간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또 중국은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과 1992년에 수교한 이후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며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중국이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마그레브(Maghreb)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 교류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은 초창기 개발 중심의 협력에서 점차 환경, 무역, 금융, 안보, 정치 등 광범위한 협력 체제로 확장했다.⁴¹ 특히 일대일로 사업이 시작된 후 중국은 무역, 항만, 교통 등 북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자 역할을 강조했다.

[표 2] 중국과 중동 주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	수교	협력 단계	시기
알제리	1958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4.05
이집트	1956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4.12
사우디아라비아	1990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6.01
이란	1971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6.01
UAE	1984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18.07
튀르키예	1971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0.10
카타르	1988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4.11
요르단	1977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5.09
이라크	1958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5.12
모로코	1958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6.05
오만	1978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8.05
쿠웨이트	1971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8.07
이스라엘	1992	혁신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17.03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토대로 저자가 작성.

41. Shirley Ze Yu, "What is FOCAC? Three historic stages in the China-Africa relationship," *Africa at LSE*, February 3, 2022., <https://blogs.lse.ac.uk/africaatlse/2022/02/03/what-is-focac-three-stages-the-new-china-africa-relationship-trade-economics/>.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이로 인한 도시 봉쇄가 한창이었던 2022년에도 중국의 대중 동 외교와 일대일로 협력은 활발히 지속됐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한 2013년 이래 지난 10년간 9,620억 달러를 일대일로 사업에 투입했다. 2022년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액은 678억 달러로, 그중 23%가 중동으로 유입됐다. 중국 푸단대학교 녹색금융개발센터의 ‘2022 일대일로 투자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단일국가로는 중동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액이 5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⁴² 2022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외무장관과 GCC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뒤이어 이란 외무장관이 2021년에 서명한 ‘중국-이란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⁴³ 2022년 중국과 모로코는 일대일로 전략의 공동 이행을 촉진하는 MOU에 서명했고, 시리아는 전후 재건을 위해 일대일로 참여를 결정했다.⁴⁴

이에 앞서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⁴⁵ 당시 UAE와 중국 간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34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⁴⁶ 실제로 중국은 △UAE 내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42. Christoph Nedopil,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2022,”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February 2023, https://greentfdc.org/wp-content/uploads/2023/02/Nedopil-2023_China-Belt-and-Road-Initiative-BRI-Investment-Report-2022.pdf.

43. “王毅同伊朗外長阿蔔杜拉希揚舉行會談”,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2.01.15., https://www.mfa.gov.cn/wjbzhd/202201/t20220115_10495894.shtml.

44. “Syria joins BRI amid extensive China-Mideast exchanges,” *Global Times*, January 13,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5939.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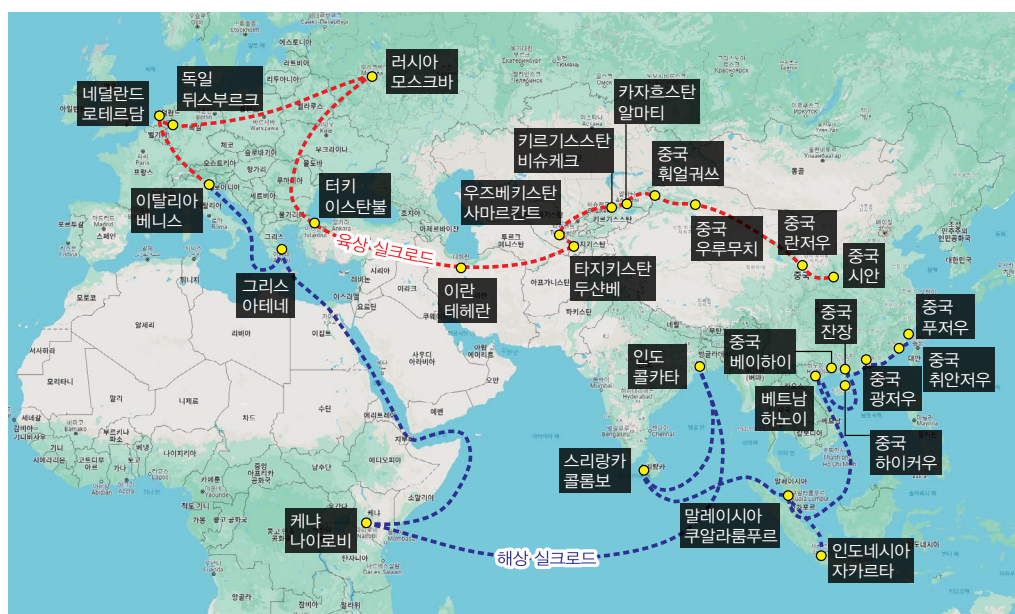
45. “Xi Jinping Meets with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pril 26, 2019., <http://www.beltandroadforum.org/english/n100/2019/0428/c22-1342.html>.

46. “The UAE signed a massive, \$3.4 billion deal with China — and that ‘isn’t a surprise,’” *CNBC*, April 29, 2019., <https://www.cnbc.com/2019/04/29/china-uae-trade-deal-on-belt-and-road-isnt-a-surprise-wef-president.html>.

에티하드 철도(Etihad Rail) 사업 체결(2019) △하시안(Hassyan)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체결(2016)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 파크(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 4단계 준공(2021) 및 5단계 건설 계약 체결(2020) △아부다비 칼리파 산업지구(Khalifa Industrial Zone Abu Dhabi, KIZAD) 항만 개발(2017~) 등 UAE의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⁴⁷

이외에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로는 △아슈도드(Ashdod) 항구 확장 △카멜(Carmel) 터널 굴착 △하이파(Haifa) 항구의 새로운 터미널 건설 △텔아비브 경전철 건설 및 운영 등이 있다.

[그림 5]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지도



출처: 신화사(<http://www.xinhuanet.com/fortune/cjzthgj/104.htm>) 참고하여 제작.

47. "China to develop more projects in UAE and Algeria," *MEED*, November 03, 2020., <https://www.meedmarshreqindustryinsight.com/china-to-develop-more-projects-in-uae-and-algeria/>

이라크는 2021년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투자 규모는 105억 달러에 달했다.⁴⁸ 중국은 이라크 내 여러 발전소 및 건설 자재 공장을 구축하는 데 관여했고, 특히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은 2021년 이라크 남부의 만수리아(Mansuriya) 가스전 개발을 확정했고, 25년 계약으로 해당 가스전 지분의 49%를 보유하게 됐다.⁴⁹

중국은 2015년 유라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튀르키예를 일대일로 전략에 포함했다. 튀르키예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양쪽 모두에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컨테이너 항구와 물류 서비스 수요를 만족하는 곳이기도 하다.⁵⁰ 이를 반영하듯 2015년 중국은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이스탄불 콤포트(Kumport) 컨테이너 터미널에 약 9억 4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하고 65% 지분을 인수했다.⁵¹ 이듬해인 2016년 중국과 튀르키예 양국은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운송 시스템을 구축에 착수했다.⁵² 이외에도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와 튀르키예의 중앙회랑사업(Middle Corridor Initiative) 연계의 일환으로 상하이전력회사(Shanghai Electric Power Company)를 통해 튀르키예 후누틀루(Hunutlu) 화력발전소 건설에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등 투자와 협력을 강화했다.⁵³

48. Christoph Nedopil Wang,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2021,”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January 2022.

49. “Sinopec to develop Iraq’s Mansuriya gas field, says ministry,” *Reuters*, April 20, 202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sinopec-wins-contract-develop-mansuriya-gas-field-oil-ministry-2021-04-20/>.

50. “Chinese consortium to invest in Turkey’s No 3 container terminal,”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7, 2015., <https://www.scmp.com/business/companies/article/1858962/chinese-consortium-invest-turkeys-no-3-container-terminal>.

51. “Chinese consortium buys into Turkish port with USD 940 million investment,”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ürkiye, March 28, 2015., <https://www.invest.gov.tr/en/news/news-from-turkey/pages/280915-cosco-pacific-buys-turkish-kumport.aspx>.

52.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urkey’s Middle Corridor: ‘Win-Win Cooperation’?” *Middle East Institute*, June 26, 2018., <https://www.mei.edu/publications/chinas-belt-and-road-initiative-bri-and-turkeys-middle-corridor-win-win-cooperation>.

53. “China’s power plant project with direct investment in Turkey starts construction,” *Xinhua News*, September 23,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9/23/c_138413218_2.htm.

중국과 요르단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한 이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5년 중국은 요르단의 운송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전반에 걸쳐 70억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아타라트(Attarat) 지역 내 17억 달러 규모의 오일세일 발전소 구축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카락(Karak) 발전소 건설 지원 △28억 달러 규모의 국가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⁵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요르단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연결하는 4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화물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⁵⁵

중국은 2013년 레바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2020년 레바논의 총수입 가운데 40%를 점했다.⁵⁶ 중국은 2019년부터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구축에 착수했다.⁵⁷ 시리아는 2022년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합의했고, 이를 전후 재건을 위한 자금을 제공받을 기회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지중해의 여러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예멘 내전이 끝난 뒤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예멘에 대대적인 협력,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미국의 탈중동 시기 안정적 입지 확보: 디지털 및 군사협력 강화

2010년까지 중국의 중동 진출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치중됐다. 그러나 2011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선언하며 점진적인 탈중동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특히 걸프 산유국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다. 중국의 중동 진출은 2020년대에 이르러 중동 국가가 중국의 역내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54. "Jordan, China sign agreements worth \$7b, including national railway deal," *The Jordan Times*, September 11, 2015., <https://jordantimes.com/news/local/jordan-china-sign-agreements-worth-7b-including-national-railway-deal>.

55. "China seeks Silk Road revival through heavy investment in Middle East," *The Jerusalem Post*, May 1, 2022.,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705616>.

56. Anchal Vohra, "China Wants to Be Lebanon's Savior," *Foreign Policy*, July 9,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7/09/china-wants-to-be-lebanons-savior/>.

57. Chaziza, Mordechai, and Efraim Karsh, "China in the Middle East: 'Silk Road' to the Levant," *Middle East Quarterly*, 2021.

2015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 및 무역 네트워크 구축에서 나아가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과 정보 통신 기술의 글로벌 거점 확보로 협력의 영역을 확장했다.⁵⁸ 2017년 12월 중국 저장성(浙江省) 우전(烏鎮)에서 열린 제4차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중국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UAE 등 국가와 함께 ‘일대일로 디지털 경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一帶一路” 數字經濟國際合作倡議)’를 발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시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⁵⁹

디지털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중동 국가의 협력은 미중 전략 경쟁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2023년 1월 자국 기업의 화웨이 기술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⁶⁰ 2020년에는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업체들에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취한 바 있다.⁶¹ 그러나 중동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화웨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산업 다각화와 파격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걸프 산유국에 있어 에너지 사용 최적화, 클라우드 컴퓨팅, 초고속 광대역,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중동 국가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 타격을 입은 대신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전자정부 플랫폼 채택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는 중국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등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은 것이었다.

58. 2015년 3월,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에서 ‘정보 실크로드(信息絲綢之路)’를 언급하며, △양국 간 광섬유 케이블 구축 △대륙 간 해저 케이블 계획 및 구축 △위성통신 개선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新華網, 2015.03.28.,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_2.htm.)

59. “數字絲綢之路建設將成為全球發展新引擎”,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9.09.09., https://www.gov.cn/xinwen/2019-09/09/content_5428411.htm.

60. “U.S. stops granting export licenses for China’s Huawei-sources,” *Reuters*, February 1, 2023.,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stops-provision-licences-export-chinas-huawei-ft-2023-01-30/>.

61. “U.S. Delivers Another Blow to Huawei With New Tech Restrictions,” *The New York Times*, May 15, 2020., <https://www.nytimes.com/2020/05/15/business/economy/commerce-department-huawei.html>.

2019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IT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의 통신회사들과 5G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중국의 해저 케이블, 위성항법시스템,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지능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중동에서 확산됐다.

2019년 화웨이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내 11개 통신회사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⁶²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년간에 걸쳐 화웨이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석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 AI 역량 개발 프로그램(National AI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 추진을 위해 화웨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⁶³ 화웨이는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 저장소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⁶⁴ 이외에도 화웨이는 UAE의 두바이 국제공항에 티어3(Tier III) 인증 모듈형 데이터 센터 단지(Modular Data Center Complex)⁶⁵를 구축하고, UAE의 비디오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DEWA)과 협력했다. 또한 UAE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Mohammed bin Rashid AI Maktoum Solar Park)에 중동·아프리카 최대 저탄소 태양광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⁶⁶

62. “Huawei remains strong in Middle East despite US restrictions,” *Arabian Business*, September 19, 2019., <https://www.arabianbusiness.com/industries/technology/428314-huawei-remains-strong-in-middle-east-despite-us-restrictions>.

63. “SDAIA partner with Huawei to launch National AI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 *HUAWEI*, October 22, 2020., <https://www.huawei.com/en/news/2020/10/huawei-sdaia-national-ai-capability-development-program>.

64. “1300 MWh! Huawei Wins Contract for the World’s Largest Energy Storage Project,” *HUAWEI*, October 18, 2021., <https://solar.huawei.com/eu/news/eu/2021/10/1300-MWh-Huawei-Wins-Contract-for-the-Worlds-Largest-Energy-Storage-Project>.

65.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업타임 인스티튜트(Uptime Institute)의 분류에 따르면 티어3 인증을 받은 데이터 센터는 강화된 데이터 이중화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도 장비의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Tier Classification System,” *Uptime Institute*, <https://uptimeinstitute.com/tiers>.)

66. “DEWA enhances strategic cooperation with Huawei,” *ZAWYA*, May 17, 2023.,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government-news/dewa-enhances-strategic-cooperation-with-huawei-vlhm9pfo>.

중국의 대중동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중동 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중동 15개국에 주요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y)을 포함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수출했다. 중동 국가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홍채와 안면 인식 기술, 인터넷 통제 기술 등을 포함한 최첨단 보안 감시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고, 이에 따라 중동 권위주의 국가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반정부 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폭압 통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민주주의 저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동 내 권위주의 국가를 상대로 내정 불간섭과 현상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⁶⁷

미국의 공백을 이용한 디지털 협력 확산에 덧붙여 중국은 중동에서 군사협력 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동 군사협력은 민주주의, 인권에 관한 정치적 규정이 부재하며, 중국의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greement)⁶⁸ 미가입으로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수출에도 제한이 없다. 바세나르 협정은 199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이 체결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를 가리킨다. 바세나르 협정은 냉전 시기 미국 주도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의 후속 체제로서 출범했으며,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과 관련 기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안보 및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중국은 중동 국가 간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여러 국가와 군사협력을 다각화하며 중동 내 새로운 행위자로 떠올랐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국은 양국 모두에 주요 무기를 공급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란의 프록시 조직 헤즈볼라(Hezbollah)는 중국산 C-802 아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고, 2010년 이란은 중국이 설계한 나스르(Nasr)-1 대함 미사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부터 차이홍(彩虹)-4 및 윈룽(翼龍)-2와 같

67. "Exporting Chinese surveillance: the security risks of 'smart cities,'" *Financial Times*, June 9, 2021., <https://www.ft.com/content/76fdac7c-7076-47a4-bcb0-7e75af0aadab>.

68. "[편람]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관련 주요 이슈", 외교부, 2023.06.02, 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7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은 중국산 무인기를 구매했고, AI를 이용해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무인 헬리콥터 블로피시(Blowfish) A3에 관심을 보였다. 2019년 UAE는 중국 탄도미사일을 구입했고,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보도가 이어졌다.

중동에서 중국과 군사협력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국가는 이란이다. 2014년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해온 중국의 유도 미사일 탑재 구축함과 호위함이 아바스항에 정박하여 이란 해군과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이란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견제하려고 서진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⁶⁹ 2020년 10월 중국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되자 즉시 이란에 무기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은 금수 조치 기간에도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대공 수색 레이더, 미사일 보트, 장갑차 등을 비밀리에 제공했고, 이러한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위기 고조에 일조했다. 2021년 이란은 중국의 베이더우(北鬥; BeiDou) 위성항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이란의 탄도 미사일은 유도 메커니즘이 아닌 중국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사거리 500km 내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장관인 웨이펑허가 이끄는 고위 군사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했다. 중국 측 대표단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리(Mohammad Bagheri) 이란 정규군 참모총장과 회담을 진행한 후, 양측이 합동 군사 훈련, 사이버 협력을 포함한 군사협력 분야 확대에 합의하고,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⁷⁰

미국은 중국의 중동 내 군사협력,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및 군사 기술 지원을 경계해왔다. 2017년 미국 재무부는 중국 국적자인 루안 룰링(Ruan Runling)과 관련 기업이 이란 국방부 연계 기업인 시라즈전자산업(Shiraz Electronics Industries, SEI)에 1,700만 달러 상당의 유도시스템과 기타 이중용도 기술을 제공한 데 대해 제재를 가했다.⁷¹ 2019년에는 이란의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을 제공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부과

69. Michal Meidan, "China and Iran: Friends in Need," *China-US Focus*, September 9, 2014., <https://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china-and-iran-friends-in-need>

70. "Not 'business as usual': The Chinese military's visit to Iran," *Middle East Institute*, May 16, 2022., <https://www.mei.edu/publications/not-business-usual-chinese-militarys-visit-iran>.

했다.⁷² 2023년 6월, 미국은 이란에 원심분리기와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판매한 중국과 홍콩 기반 기업에 제재를 가했으며, 해당 조치가 역내 안정성을 저해하고 미국의 핵심 파트너와 동맹국을 위협하는 데 대한 대응임을 강조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동 내 군사협력은 지속해서 심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란의 중러 밀착과 이로 인한 서방과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직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오만만에서 ‘2023 해상 안보 벨트(2023 Marine Security Belt)’로 명명된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3국의 해군은 훈련 중 함대 공동 기동과 주야간 함포 사격 연습을 시행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군함인 ‘고르시코프 제독함’이 파견되었고, 귀환 과정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전략 항구인 제다에 입항했다. 이란의 중러 밀착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미국 재무부는 이란 국방기술과학연구센터(Defense Technology and Science Research Center)와 파라잔 산업엔지니어링(Farazan Industrial Engineering, Inc.)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를 조치했다.⁷⁴ 유럽연합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무인항공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복수의 이란 군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왔다.⁷⁵

그 외에도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 UAE와의 경제적 연계를 넘어 군사 부문으로 확대했다. 올해 4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2022년 12월 UAE

71. “Treasury Sanctions Iranian Defense Officials and a China-Based Network for Supporting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U.S. Department of Treasury, July 17, 2017.,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m0088>.

72. “Treasury Sanctions Global Iranian Nuclear Enrichment Network,” U.S. Department of Treasury, July 18, 201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736>.

73. “Treasury Sanctions International Procurement Network Supporting Iran’s Missile and Military Programs,” U.S. Department of Treasury, June 6,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524>.

74. “Treasury Continues to Sanction Procurement Networks for Iran’s UAV and Weapons Program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rch 21,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55>.

75. “EU adds Iranian drone manufacturer to Russia sanctions list,” *European Sanctions*, January 31, 2023., <https://www.europeansanctions.com/2023/01/eu-adds-iranian-drone-manufacturer-to-russia-sanctions-list/>.

수도 아부다비 근처 항구인 할리파항에 군사시설을 비밀리에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⁷⁶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에서 오랜 동맹국인 UAE에 경고하고서 잠시 공사가 중단하다가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아부다비에서 32km 떨어진 공군기지에는 미군 5,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29일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潭克非)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UAE 간 군사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협력, 제휴, 고위급 왕래, 군병종 사이 교류, 연합훈련, 장비기술, 인력 육성 등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3년 7월 중국 국방부는 중국 공군과 UAE 공군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⁷⁷

3. 중국의 수니파-시아파 갈등 중재와 중동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평가

2023년 3월 중국은 중동에서 수니파-시아파 갈등 중재에 성공했다. 7년간 단교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유능한 외교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반정부 시아파 유력인사를 테러 혐의로 처형하자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공격했고 두 국가는 바로 단교 상태에 들어갔다. 2021년 수니파의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은 이라크의 중재로 바그다드에서 네 차례 회동을 진행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이란 영사관 재개를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3월 베이징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2개월 내 상호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맞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의 화해를 이끌어 내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중국은 6개 수니파 아랍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와 이란 간 다자 정상회의를 연말 베이징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협상의 의미와 중국의 역할을 애써 평가절하했다.⁷⁸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재하면서 기존의 경제 협력 파트너에 머물렀던 소극적

76. "Buildup resumed at suspected Chinese military site in UAE, leak says," *Washington Post*, April 26,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3/04/26/chinese-military-base-uae/>.

77. "中國和阿聯酋將舉行首次空軍聯合訓練",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 2023.07.31., <http://www.mod.gov.cn/gfbw/qwfb/16241119.html>.

78. "China's Role in Iran-Saudi Arabia Deal Shows Xi's Global Goals," *The New York Times*, March 11, 2023., <https://www.nytimes.com/2023/03/11/world/asia/china-saudi-arabia-iran-us.html>; "White House Welcomes Chinese-Brokered Saudi-Iran Deal," VOA, March 10, 2023., <https://www.voanews.com/a/white-house-welcomes-chinese-brokered-saudi-iran-deal/6999700.html>.

역할에서 탈피했다. 수년간 중국은 중동에서 경제 관계 구축에 주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중동의 다양한 국가와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역내 정치와 안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안보 보장에 무임승차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걸프 산유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는데 그해 여름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불거졌던 마찰과는 대비되는 양상이었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존의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간 벌어진 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⁷⁹

냉전 시기에도 중국은 미소 경쟁 구도의 틈을 이용해 중동에서 독자적 입지 확보와 전략적 협력을 시도했다. 냉전 시기 중동은 미국과 소련 간 체제 경쟁의 장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중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중동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중동 내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1950년대 미국은 공산주의 봉쇄를 위해 중동에 민주적인 국가 재건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반미 세력과 사회주의 운동 확산을 막는 데 뛰어난 독재정권이나 급진주의 세력을 지원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중동과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 지원이라는 대원칙을 어겼고 무슬림 대중의 반미 감정을 부추겼다. 중국은 미국의 사회주의 진영 봉쇄 정책의 영향을 우려해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에 참여하는 일변도(一邊倒) 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중동 국가와의 적극적인 수교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⁸⁰ 중국은 중동의 여러 나라와 비슷하게 서구의 침략으로 제국의 몰락을 경험했고 패권주의 국제질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우방관계를 유지해왔다. 1955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 모로코, 수단, 예멘, 알제리 등 아랍 국가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대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중국은 인도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반둥 회의 의제에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79. "China's Xi to visit Saudi Arabia amid frayed ties with the US," CNN, December 6, 2022., <https://edition.cnn.com/2022/12/05/middleeast/xi-jinping-saudi-arabia-visit-intl/index.html>.

80. 牛新春, "想像與真相: 中國的中東政策", 西亞非洲 4, 2021.

[표 3] 1950년대 중국과 중동 국가 수교

국가	수교
이집트	1956
예멘	1956
시리아	1956
알제리	1958
이라크	1958
모로코	1958
수단	1959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토대로 저자가 작성.

마오쩌둥은 미국이나 소련 중 어느 한쪽이 중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경우 중국의 이해관계와 안보에 해가 될 것으로 여겼지만, 이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다. 특히 1960년대 대내적으로는 문화대혁명, 대외적으로는 중소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중동 내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사회주의 세력 지원에 나서자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슬람 급진주의 저항 세력을 지원했다. 미국이 지원한 이슬람주의 세력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파슈툰(Pashtun), 타지크(Tajik), 하자라(Hazara) 등 여러 부족뿐 아니라 이웃 무슬림 국가에서 건너와 사회주의 무신론자에 대항한 다양한 국적의 이슬람 전사 무자헤딘(Mujahideen)이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의 지원에 힘입어 이슬람 성전 지하드(Jihad)를 자국이 아닌 곳에서 행한 국제 지하디스트 1세대가 됐다. 한편 1979년 이란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나 부패하고 무능한 친미 팔레비 왕정이 붕괴된 후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되자 이웃 국가의 혁명이 자국에 미칠 여파를 우려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이라크 대통령이 1980년 이란을 침공했다. 당시 미국은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이란과 최악의 관계에 놓였고, 결국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의 독재정권 지원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미중 수교를 계기로 미국과 관계 개선에 힘쓰기 시작했고 대외 개방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소련이 중동 지

역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동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⁸¹ 마오쩌둥은 이란의 친미 팔레비 왕정과 함께 협력하며 소련을 견제하기도 했으나 덩샤오핑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를 상대로 고전하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정권을 지원했다. 덩샤오핑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블록인 ‘제1세계’나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제2세계’가 아닌 ‘제3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발발 이후 미국 주도로 대중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지자 미중 관계가 악화했고,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견제하게 되었다.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 중동 내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 확산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실용 노선이 심화하자 중동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지하디스트 세력과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은 더욱 과격한 알카에다로 재정비했고, 다양한 무슬림 국가에서 급진주의에 경도된 젊은이들을 모집했다. 냉전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이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백을 대체하자 미국은 이들을 향한 봉쇄 정책을 신속히 시행했다. 알카에다는 서구의 잔재를 뿌리 뽑고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본토에서 9·11 테러를 감행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급진주의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의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자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대테러전을 시작했다. 2003년에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후 안정화와 재건 정책을 통한 치안 확보, 민주주의 구축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 확보에도 실패했다.

반면 1990년대 경제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둔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2000년대 중국은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이란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했으며, 심각한 제재에 직면한 이란은 이를 환영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이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중국에 핵기술 이전을 요청하자 1997년 클린턴 정부가 이란에 경제 협력을 제안하여 중국의 핵협력 중단을 이끌어냈다. 이란은 1984년 이스파한 원자력 기술 센터를 설립해 중국에 원자력 기술자 교육 지원을 요청했고 1990년 두 나라는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은 전후 재건사업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대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한편, 이란은 중국의 조건적 지원을 환영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81. 肖憲, “改革開放初期中國與中東國家經貿關係的發展”, 《阿拉伯世界研究》5, 2018.

최근 중국이 중동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서자 미국에서는 중동 이탈을 재고해야 한다는 초당적 여론이 형성됐다.⁸²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없는 러시아 대신 중국이 국제무대의 중재자를 자임해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 테이블을 좌우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⁸³ 실제로 중동 주요국의 엘리트 대다수가 G2 중국을 미국의 균형자로 인식하며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외교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까지 중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국제사회에 ‘중동 평화 중재자’, ‘미국보다 나은 해결사’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⁸⁴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국은 중동 국가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GCC 6개 회원국 모두에 군사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군 4만여 명이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주둔하거나 방문 중이다. 미 해군의 제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고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 사령부가 카타르에 있다.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미 공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제5함대와 중부사령부의 지역 사령부는 미군의 중동 내 핵심 군사 전력이다. 미군은 항공모함 대신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를 실은 핵추진 잠수함 USS 플로리다호를 페르시아만으로 보내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 개발을 목표로 리야드 근처에 ‘레드 샌즈 통합실험 센터(Red Sands Integrated Experimentation Center)’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란과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맞설 수 있는 30억 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의 판매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승인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추진하는 산업 다각화 정책이 세계적인 탈탄소화 추세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 중국의 협력이 꾸준히 지속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국가 정보에 매우 민감한 이스라엘에서 중국이 자국에서 시행하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군사 안보 거점을 지나고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82. Jonathan Lord and Arona Baigal, “America Is Pushing Its Security Ideas on a Lukewarm Middle East,” *Foreign Policy*, July 11,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7/11/middle-east-security-military-defense-us-congress-israel-saudi-arabia-uae-gcc-iran-biden-salman-zayed/>.

83. Jacopo Scita, “Can China Be the JCPOA’s Last Hope?” *The Diplomat*, February 23, 2023., <https://thediplomat.com/2023/02/can-china-be-the-jcpoas-last-hope/>.

84. “China steps up diplomacy with offer to mediate in Israeli-Palestinian conflict,” *Financial Times*, June 15, 2023., <https://www.ft.com/content/85f59686-a5dd-4bdd-8c6d-857d6da3435a>.

IV. 나가며: 중동과 중국의 협력 강화가 한국의 중동정책에 주는 함의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동에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정보기술, 무기 거래, 안보 협력 분야를 넘어 외교적 노력과 분쟁 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로 부상했다. 과거 중동에 만연한 정치적 불안정이 자국의 공격적인 경제 발전 계획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우회하거나 개입을 자제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을 중재하고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를 놀라게 했다. 뒤이어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핵협정 복원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제시하며 중재자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중동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교두보인 동시에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심 지역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국은 걸프 산유국의 핵심 원유 수입국이자 이들 국가가 파격적인 내용과 속도로 이끄는 경제 개혁의 파트너일뿐더러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이란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으나 여전히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이며 중국은 이란의 핵심 고객이다. 또 중국은 경제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라크에도 위험 회피 전략으로 몸을 사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와 달리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2021년 중국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관련 및 에너지 프로젝트 명목으로 이라크에 약 105억 달러를 투자했다.⁸⁵

이에 더해 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 및 부패 척결을 외치는 미국과 달리 개발과 발전을 강조하며 비정치적 차원의 윈-윈 모델을 주장한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에서 천명하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개념을 대외정책에도 적용해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또 원조를 주는 국가에게 인권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원칙을 세우고 비민주적 관행을 지속하는 국가에는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단행한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 국가의 요구에 지친 중동 정부에 중국의 성장 모델은 조건 없이 대출과 투자를 제공한다. 1978년 중국 인구의 90%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지만 2014년에는 그 수가

85.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nvestment Report 2021,”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January 2022.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여러 중동 국가에게 중국의 발전 모델은 서구 모델과 달리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한다.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은 중국의 빠른 발전 모델을 강조하며 2003년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미국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걸프 산유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중요 무대로 부상했고 사이버 공간은 첨예한 갈등의 주된 분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동맹국과 함께 투명성,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협력 등의 국제규범과 가치를 방어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나섰다. 2021년 6월 바이든 정부는 G7 국가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호와도 맞닿은 B3W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디지털 민주주의, 성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B3W 이니셔티브의 원칙은 우리 대외정책의 기초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중동에서 핵확산 금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자유 시장경제와 법질서 지지를 핵심으로 삼는 중견국 외교를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감시 시스템 강화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 원칙과 크게 어긋난다. 중동의 정부와 시민 역시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장기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보편가치와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중동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야 한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이래 이러한 원칙과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경제 이익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 정책,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임무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2021년 한국은 레바논 동명부대, 아덴만 청해부대, 남수단 한빛부대의 활약을 발판 삼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10번째로 큰 기여국이 됐다. 따라서 우리의 중동정책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규범의 원칙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를 지속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실현을 지향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아 가치 경쟁 속에서 고민을 겪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치 중심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들이 역점을 두는 개혁과 개방 및 세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중동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과 꽤 겹친다. 2022년 기준 세계 7위의 에너지 자원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수요의 약 73%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해외 건설 계약의 60%가 중동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우리와 중동 여러 나라의 경제 협력은 에너지 자원과 건설 및 제조업 수출 부문을 넘어 중동의 산업 다각화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다각화 프로젝트에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경쟁한 기업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들 나라가 대외 정책의 다변화까지 선언한 후라 이곳의 초대형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국가들의 경쟁이 뜨겁다.

다행히 여러 중동 국가에서 최근 한국의 발전 모델 배우기 열풍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국가 역량 키우기의 롤 모델로 여겨진다. 한국은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매우 드문 성공 사례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 기구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더구나 중동 이슬람 세계의 여러 나라는 종교와 전통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나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 모두를 불편해한다. 통제와 시장이라는 좌우 이념에 휘둘린 이들 중동 나라에 한국 모델은 아시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장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뤄낸 주변국의 쾌거다.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는 여러 중동 국가는 개혁 현장에 투입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청년과 여성의 교육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우리나라에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단을 보낸다. 특히 개혁으로 출구 찾기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산유국에는 개혁을 향한 확고한 지지 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젊은 세대가 바로 이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세대의 교육을 위해 첨단과학 분야와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로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중동은 우리의 핵심 경험 파트너 국가가 밀집한 지역이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외교 역량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들의 ‘룩 이스트’ 혹은 동방 정책의 대상국 가운데 ‘한국 모델’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라는 독보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중견국 의제 실천을 통해 중동 불안정 해소에 독자적으로 기여한다면 한미공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 확산, 역내 미 우방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 부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악화, 러시아-이란-중국 간의 반미 연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통적인 미 우방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스라엘 등은 미국의 중동 이탈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역내 동맹 체제는 느슨해졌고 중국은 터키,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걸프

산유국의 개혁 정책 및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역내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 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장지향, 『최소한의 중동 수업』, 서울: 시공사, 2023.

Hakan Yavuz, *Nostalgia for the Empire: The Politics of Neo-Ottom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2. 논문 및 보고서

장지향·유아름, “UAE·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과 청년 의식 변화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06.08.

牛新春, “想像與真相: 中國的中東政策”, *西亞非洲* 4, 2021.

肖憲, “改革開放初期中國與中東國家經貿關係的發展”, *阿拉伯世界研究* 5 (2018).

ADNOC adds new Chinese partner to Lower Zakum, Umm Shaif, Nasr concessions, *Oil & Gas Journal*, July 30, 2020.

Amar Jallo, “China and the Arab World: From the Silent Partner to Center Stage,” *Wilson Center Viewpoints Series*, August 17, 2023.,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china-and-arab-world-silent-partner-center-stage>

Amy Belasco, “Troop Levels in the Afghan and Iraq Wars, FY2001-FY2012: Cost and Other Potenti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2, 2009.

Chaziza, Mordechai, and Efraim Karsh, “China in the Middle East: ‘Silk Road’ to the Levant,” *Middle East Quarterly*, 2021.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022.

Christoph Nedopil Wang,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2021,”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January 2022.

- Christoph Nedopil Wang,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2022,”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February 2023.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on the Middle East and the Arab World. Accessed June 3, 2023., <https://sgp.fas.org/crs/mideast/>.
- David Ottaway, “Partners of Choice: Biden’s Plan to Check China in Saudi Arabia and the Gulf,” *Wilson Center Viewpoints Series*, May 1, 2023.,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partners-choice-bidens-plan-check-china-saudi-arabia-and-gulf>
- Dominika Urhová, “China’s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Middle East: Lessons from China’s Engagement Elsewhere,”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2.
- Guanie Lim and Mustafa Yağcı, “China in the Middle East: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Transform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ocial Change in the Gulf Regio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3.
- John Calabrese, “China Prioritizes Short-Term Energy Security: Implications for Sino-Middle East Relations,”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2.
- Merissa Khurma, “China has a Growing Presence in Arab Hearts and Minds,” *MEI Middle East-Asia Project*, 2023.
- Michael Robbins, “Public Views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MENA,” *Arab Barometer*, July 2022.
- Patrick Theros, “Changing Alignments in the Lower Gulf,” *Gulf International Forum*, July 25, 2023., <https://gulfif.org/changing-alignments-in-the-lower-gulf/>.
- “Taking Arabs’ Pulse: US and China Competition in MENA,” *Arab Barometer*, October 2021–July 2022.
- “U.S. & China’s competition extends to MENA,” *Arab Barometer*, January 12, 2021

3. 중국 정부 문서

- “共建‘一帶一路’走深走實 推動構建中阿命運共同體”，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2.12.08., https://www.gov.cn/xinwen/2022-12/08/content_5730665.htm.
- “數字絲綢之路’建設將成為全球發展新引擎”，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19.09.09., https://www.gov.cn/xinwen/2019-09/09/content_5428411.htm.
- “王毅同伊朗外長阿蔔杜拉希揚舉行會談”，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2.01.15., https://www.mfa.gov.cn/wjbzhd/202201/t20220115_10495894.shtml.
- “習近平同伊朗總統萊希舉行會談”，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3.02.14., https://www.gov.cn/xinwen/2023-02/14/content_5741511.htm.
- “中國和阿聯酋將舉行首次空軍聯合訓練”，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2023.07.31., <http://www.mod.gov.cn/gfbw/qwfb/16241119.html>.
- “中國同阿聯酋的關係”，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3.04.,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234/sbgx_676238/.
- “中國同沙特阿拉伯的關係”，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3.04.,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860/sbgx_676864/.
- “中國同伊拉克的關係”，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3.04.,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7148/sbgx_677152/.
- “2022年12月9日外交部發言人毛寧主持例行記者會”，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2022.12.,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212/t20221209_10988033.shtml.

4. 기타

- “아랍권 청년층이 생각하는 우방국은?” 연합뉴스, 2023.06.22.
- “[편람]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관련 주요 이슈”, 외교부, 2023.06.02, 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7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新華網，2015.03.28.,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_2.htm.

- “As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Middle East heats up, polling data shows a complex picture of popular attitudes,” *Middle East Institute*, February 23, 2023, <https://www.mei.edu/publications/great-power-competition-middle-east-heats-polling-data-shows-complex-picture-popular>.
- Anchal Vohra, “China Wants to Be Lebanon’s Savior,” *Foreign Policy*, July 9,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7/09/china-wants-to-be-lebanons-savior/>.
- “Buildup resumed at suspected Chinese military site in UAE, leak says,” *Washington Post*, April 26,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3/04/26/chinese-military-base-uae/>.
- “China becomes world’s top oil importer,” *Financial Times*, March 5, 2013., <https://www.ft.com/content/d33b5104-84a1-11e2-aaf1-00144feabdc0>.
- “China buys more Iranian oil now than it did before sanctions, data shows,” *Reuters*, March 2, 20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buys-more-iranian-oil-now-than-it-did-before-sanctions-data-shows-2022-03-01/>.
- “China is getting comfortable with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The West must pragmatically adapt to its growing regional influence,” *Atlantic Council*, April 5, 2023.,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menasource/china-is-getting-comfortable-with-the-gulf-cooperation-council-the-west-must-pragmatically-adapt-to-its-growing-regional-influence/>.
- “ChinaMed Data - Middle East,” ChinaMed Data - Middle East. Accessed June 3, 2023., <https://www.chinamed.it/chinamed-data/middle-east>.
- “China, Saudi Arabia set for closer military ties as sun sets for US in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7, 2022.,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64943/china-saudi-arabia-set-closer-military-ties-sun-sets-us-middle>.
- “China seeks Silk Road revival through heavy investment in Middle East,” *The Jerusalem Post*, May 1, 2022.,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705616>.
- “China Sees Itself at Center of New Asian Order,” *WSJ*, November 9, 2014., <https://www.wsj.com/articles/chinas-new-trade-routes-center-it-on->

geopolitical-map-1415559290.

“China steps up diplomacy with offer to mediate in Israeli-Palestinian conflict,” *Financial Times*, June 15, 2023., <https://www.ft.com/content/85f59686-a5dd-4bdd-8c6d-857d6da3435a>.

“China surpasses US in popularity among Arab youth as Beijing expands Middle East footprint,” *CNN*, June 21, 2023., <https://edition.cnn.com/2023/06/21/middleeast/china-surpasses-us-mideast-survey-mime-intl/index.html>.

“China to develop more projects in UAE and Algeria,” *MEED*, November 03, 2020., <https://www.meedmashreqindustryinsight.com/china-to-develop-more-projects-in-uae-and-algeria/>.

“China, With \$400 Billion Iran Deal, Could Deepen Influence in Mideast,” *The New York Times*, March 27,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27/world/middleeast/china-iran-deal.html>.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and Turkey’s Middle Corridor: ‘Win-Win Cooperation’?” *Middle East Institute*, June 26, 2018., <https://www.mei.edu/publications/chinas-belt-and-road-initiative-bri-and-turkeys-middle-corridor-win-win-cooperation>.

“China’s power plant project with direct investment in Turkey starts construction,” *Xinhua News*, September 23,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9/23/c_138413218_2.htm.

“China’s Role in Iran-Saudi Arabia Deal Shows Xi’s Global Goals,” *The New York Times*, March 11, 2023., <https://www.nytimes.com/2023/03/11/world/asia/china-saudi-arabia-iran-us.html>.

“China’s Xi to visit Saudi Arabia amid frayed ties with the US,” *CNN*, December 6, 2022., <https://edition.cnn.com/2022/12/05/middleeast/xi-jinping-saudi-arabia-visit-intl/index.html>.

“Chinese-built Mecca Light Railway praised by Hajj pilgrims,” *CGTN*, August 30, 2018., https://news.cgtn.com/news/3d3d514f7a55444f79457a6333566d54/share_p.html.

“Chinese consortium buys into Turkish port with USD 940 million investment,”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ürkiye, March 28, 2015., <https://www>.

invest.gov.tr/en/news/news-from-turkey/pages/280915-cosco-pacific-buys-turkish-kumport.aspx.

“Chinese consortium to invest in Turkey’s No 3 container terminal,”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7, 2015., <https://www.scmp.com/business/companies/article/1858962/chinese-consortium-invest-turkeys-no-3-container-terminal>.

“DEWA enhances strategic cooperation with Huawei,” ZAWYA, May 17, 2023.,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government-news/dewa-enhances-strategic-cooperation-with-huawei-vlhm9pfo>.

“EU adds Iranian drone manufacturer to Russia sanctions list,” *European Sanctions*, January 31, 2023., <https://www.europeansanctions.com/2023/01/eu-adds-iranian-drone-manufacturer-to-russia-sanctions-list/>.

“Exporting Chinese surveillance: the security risks of ‘smart cities’,” *Financial Times*, June 9, 2021., <https://www.ft.com/content/76fdac7c-7076-47a4-bcb0-7e75af0aadab>.

“Huawei remains strong in Middle East despite US restrictions,” *Arabian Business*, September 19, 2019., <https://www.arabianbusiness.com/industries/technology/428314-huawei-remains-strong-in-middle-east-despite-us-restrictions>.

Jacob Knutson, “Where U.S. troops are stationed in the Middle East,” *AXIOS*, October 31, 2023., <https://www.axios.com/2023/10/31/american-troops-middle-east-israel-palestine>

Jacopo Scita, “Can China Be the JCPOA’s Last Hope?” *The Diplomat*, February 23, 2023., <https://thediplomat.com/2023/02/can-china-be-the-jcpoas-last-hope/>.

Jeffrey Goldberg, “The Obama Doctrine: The U.S. president talks through his hardest decisions about America’s role in the world,” *The Atlantic*, April 15, 2016., <https://www.theatlantic.com/press-releases/archive/2016/03/the-obama-doctrine-the-atlantics-exclusive-report-on-presidents-hardest-foreign-policy-decisions/473151/>

Jonathan Lord and Arona Baigal, “America Is Pushing Its Security Ideas on

- a Lukewarm Middle East,” *Foreign Policy*, July 11,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7/11/middle-east-security-military-defense-us-congress-israel-saudi-arabia-uae-gcc-iran-biden-salman-zayed/>.
- “Jordan, China sign agreements worth \$7b, including national railway deal,” *The Jordan Times*, September 11, 2015., <https://jordantimes.com/news/local/jordan-china-sign-agreements-worth-7b-including-national-railway-deal>.
- Michal Meidan, “China and Iran: Friends in Need,” *China-US Focus*, September 9, 2014., <https://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china-and-iran-friends-in-need>.
- “Not ‘business as usual’: The Chinese military’s visit to Iran,” *Middle East Institute*, May 16, 2022., <https://www.mei.edu/publications/not-business-usual-chinese-militarys-visit-iran>.
- Oktay Özilhan, “AKP’nin şarkısında ‘Uzun adam’ gitti ‘Osmanlı torunu’ geldi,” *Taraf Gazetesi*, February 8, 2015.
- “Olympics: Qatar and UAE leaders meet for first time since Gulf thaw,” *Middle East Monitor*, February 6, 2022.,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20206-olympics-qatar-and-uae-leaders-meet-for-first-time-since-gulf-thaw/>.
- “Quick guide to China’s diplomatic level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0, 2016.,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1903455/quick-guide-chinas-diplomatic-levels>.
- “Remarks by the President at Cairo University,” The White House, June 4, 2009.,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Cairo-university-6-04-09>.
-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hite House, May 19,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05/19/remarks-president-middle-east-and-north-africa>.
-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11/17/remarks-president-obama-australian-parliament>.

- “Russia is China’s top crude supplier for Jan–Feb; volumes up 23.8% yoy,” *Reuters*, March 20, 2023.,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russia-is-chinas-top-crude-supplier-jan-feb-volumes-up-238-yoy-2023-03-20/>.
- “Saudi Aramco boosts China investment with two refinery deals,” *Reuters*, March 27, 2023.,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audi-aramco-open-new-china-refinery-petchem-complex-2026-2023-03-26/>.
- “Saudi and Chinese companies Sign 34 Investment Agreements,” *Saudi Press Agency*, December 8, 2022., <https://sp.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407555>.
- “Saudi Arabia signs Huawei deal, deepening China ties on Xi visit,” *Reuters*, December 9, 2022., <https://www.reuters.com/world/saudi-lays-lavish-welcome-chinas-xi-heralds-new-era-relations-2022-12-08/>.
- “SDAIA partner with Huawei to launch National AI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 *HUAWEI*, October 22, 2020., <https://www.huawei.com/en/news/2020/10/huawei-sdaia-national-ai-capability-development-program>.
- Shirley Ze Yu, “What is FOCAC? Three historic stages in the China–Africa relationship,” *Africa at LSE*, February 3, 2022., <https://blogs.lse.ac.uk/africaatlse/2022/02/03/what-is-focac-three-stages-the-new-china-africa-relationship-trade-economics/>.
- “Sinopec to develop Iraq’s Mansuriya gas field, says ministry,” *Reuters*, April 20, 202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sinopec-wins-contract-develop-mansuriya-gas-field-oil-ministry-2021-04-20/>.
- “Sri Lanka, Struggling With Debt, Hands a Major Port to China,”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2, 2017., <https://www.nytimes.com/2017/12/12/world/asia/sri-lanka-china-port.html>
- “Syria joins BRI amid extensive China–Mideast exchanges,” *Global Times*, January 13,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5939.shtml>.
- “The UAE signed a massive, \$3.4 billion deal with China — and that ‘isn’t a

surprise’,” *CNBC*, April 29, 2019., <https://www.cnbc.com/2019/04/29/china-uae-trade-deal-on-belt-and-road-isnt-a-surprise-wef-president.html>.

“Tier Classification System,” *Uptime Institute*, <https://uptimeinstitute.com/tiers>.

“Treasury Continues to Sanction Procurement Networks for Iran’s UAV and Weapons Program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rch 21,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55>.

“Treasury Sanctions Global Iranian Nuclear Enrichment Network,” U.S. Department of Treasury, July 18, 201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736>.

“Treasury Sanctions International Procurement Network Supporting Iran’s Missile and Military Programs,” U.S. Department of Treasury, June 6,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524>.

“Treasury Sanctions Iranian Defense Officials and a China-Based Network for Supporting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U.S. Department of Treasury, July 17, 2017.,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m0088>.

“Trump Says Iran Appears Responsible for Saudi Attack but That He Wants to Avoid Wa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6,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16/world/middleeast/saudi-oil.html>

“U.S. Delivers Another Blow to Huawei With New Tech Restrictions,” *The New York Times*, May 15, 2020., <https://www.nytimes.com/2020/05/15/business/economy/commerce-department-huawei.html>.

“U.S. stops granting export licenses for China’s Huawei-sources,” *Reuters*, February 1, 2023.,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stops-provision-licences-export-chinas-huawei-ft-2023-01-30/>.

“White House Welcomes Chinese-Brokered Saudi-Iran Deal,” *VOA*, March 10, 2023., <https://www.voanews.com/a/white-house-welcomes-chinese-brokered-saudi-iran-deal/6999700.html>.

“Why do Muslim states stay silent over China’s abuse of the Uighurs?” *The Guardian*, July 4,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

free/2020/jul/04/why-do-muslim-states-stay-silent-over-chinas-
uighur-brutality.

“Xi Jinping Meets with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pril 26, 2019., <http://www.beltandroadforum.org/english/n100/2019/0428/c22-1342.html>.

“1300 MWh! Huawei Wins Contract for the World’s Largest Energy Storage Project,” *HUAWEI*, October 18, 2021., <https://solar.huawei.com/eu/news/eu/2021/10/1300-MWh-Huawei-Wins-Contract-for-the-Worlds-Largest-Energy-Storage-Project>.

ASAN REPORT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발행일 2023년 12월

지은이 장지향, 신문경, 김지연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82-6 95340 (PDF)



ISBN 979-11-5570-282-6